

한방간호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예비연구*

한상숙¹⁾ · 김원옥¹⁾ · 원정숙¹⁾ · 현경선¹⁾ · 최경옥²⁾ · 장경희³⁾
이미애⁴⁾ · 김숙영⁵⁾ · 전은영⁶⁾ · 김정숙⁷⁾ · 이은숙⁸⁾ · 배영숙⁹⁾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5000년 역사 속에서 국민적 건강관련 정서가 한방적 사고로 인식되어왔다. 전통의 우리문화는 氣의 문화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선조들은 氣를 중시했으며 기 자체를 생명이 순환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氣가 막히면 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전통 속에 몸을 담고 살았으므로 이러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입각해서 한국적인 간호학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100년 사이에 실증주의적 과학을 토대로 한 서양의학에 밀려 간호학도 서양간호학 중심의 학문으로만 급성장하였다. 대를 이어서 한방적 사고로 건강관리를 해오던 우리의 간호대상자들은 우리의 문화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서양간호학적 돌봄만을 제공받음으로써 대상자-간호사간의 어려움과 불만족을 겪게 되었다(김귀분, 1991).

21세기를 맞이하여 서양간호로만 건강관리를 해나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만성질환과 성인병이 증가하면서 많은 의과대학에서 대체의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Eisenberg, Davis, Ettner, Appoel & Wilkey 1998),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서양의학의 한계를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의료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도 서양간호만으로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우리의 간호를 정립해 나갈 수가 없다(신재신, 1997). 또한 우리나라에는 입원환자가 있는 한방병원의 수가 이미 100 여개를 넘어섰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의학은 그 기본철학, 문화적 배경, 접근방식이 서양의학과는 전혀 맥을 달리한다(오미정, 1997).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의 건강의 의미는 동양철학에 바탕을 둔 인간관, 건강관, 치료관, 질병관을 중심으로 건강증진과 예방에 중점을 두었고 자연치유력을 증진시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방간호의 우선적 목적도 자연적인 순환과 리듬을 지키고 인간을 소우주로 생각하며 환경과 인간과의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있으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충선, 1999). 신경림(1998)도 한국간호사상의 틀을 도교적인 양생사상과 치료의학사상이 조화를 이루고 동의보감에서 제시한 유·불·선교, 음양오행, 氣이론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국적 간호중재를 단전호흡, 수지침, 쑥뜸, 경락요법, 음양오행 식이요법, 기공 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한방병원에서 서양간호개념을 중심으로 교육받은 간호사들이 한방적 사고가 배제된 채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한방병원의 간호 실무에 매우 큰 지해 요소로서, 한방간호를 제공할 올바른 교육을 받은 간호 인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동안 쌓아왔던 과학적인 서양간호의 토대위에 이와 같은 한방간호를 정립함으로써 한방적

* 본 연구는 동서간호연구소 지원으로 이루어짐.

- | | | |
|-----------------|----------------|----------------|
| 1)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 4)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 7)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
| 2) 안산1대학 간호학과 | 5) 포천중문의대 간호학과 | 8) 전남과학대 간호학과 |
| 3) 강원관광대학 간호학과 | 6) 경산대학교 간호학부 | 9) 기독간호대학 간호학과 |

건강관리가 생활화된 우리의 간호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되리라 본다. 따라서 지금은 간호교육에서 한방간호교육을 시급히 정립해 나가야 할 때이므로 올바른 한방간호교육을 통해서 한국적 간호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우리의 간호가 될 것이라 믿는다.

한방간호교육에 대한 오미정(1999)의 연구를 보면 간호학교수들은 동양철학(87.5%), 한의학 개론(87.5%), 본초학(75.0%), 한방생리(70.8%), 경혈학(66.7%) 등의 기초 한의학 교과목이 교육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대부분 한방간호임상실습(90.9%)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미 한방간호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많은 대학에서 한방관련 교과목을 하나 둘씩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간호교육이 간호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들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체계적 연구가 없이 이루어지는 한방간호교육으로는 한국적 간호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방간호교육이 간호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한방간호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 대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방간호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방간호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한방간호 :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자연과 합일적인 존재인 인간을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간호하는 것을 말한다(동서간호학연구소, 2000).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방간호 교과목을 수강한 간호학생들의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교과과정에 한방간호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48개 학교 중에서 9개교를 편의표출한 다음, 선정된 학교 학생 중에서 한방간호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편의표출한 학교는 서울 1개교, 대구 1개교, 광주 1개교, 경기 2개교, 경북 1개교, 전남 2개교, 강원 1개교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대상자가 자가 보고형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였다. 설문지를 1050부 배부하여 912부 회수하였고(회수율86.9%),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여 789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123개의 기초문항을 작성한 다음 간호학교수 4명과 한방병동 수간호사 5명이 내용타당도를 검사하여 86문항으로 수정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4점 척도로서 매우 동의한다 4점, 동의한다 3점,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을 부여하였고, 부정문항 10개는 역으로 환산하였다.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dow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3학년이 54.3%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개신교가 28.7%로 가장 많았다. 한방간호 관련 이수학점은 1-2학점이 40.0%로 가장 많았고, 6-8학점을 이수한 학생도 23.3%나 되었다. 또한 한방 임상실습은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이 75.9%로 가장 많았으며, 2주 실습을 한 학생도 17.7% 있었다. 가족이나 본인이 한방병원 외래치료를 경험한 학생은 66.0% 이었고 가족이나 본인의 한방병원 입원 경험은 11.1%에 불과하였다. 그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제변수의 특성

특성	분 류	N	%
학년	2	159	20.2
	3	428	54.3
	4	202	25.5
종교	개신교	226	28.7
	천주교	116	14.7
	불교	115	14.6
	기타	332	42.1
이수학점	1-2	316	40.0
	3-5	289	36.7
	6-8	183	23.3
	안함	598	75.9
한방임상실습(주)	1	51	6.4
	2	140	17.7
한방외래 치료경험 (본인/가족)	무	268	34.0
	유	251	66.0
한방병원 입원경험 (본인/가족)	무	702	88.9
	유	87	11.1
한방간호 관심정도	높다	548	69.4
	낮다	241	30.6
한방간호 발전기대	높다	677	85.8
	낮다	112	14.2
간호사역할 확대기대	높다	531	67.3
	낮다	258	32.7
만성질환 예방효과	높다	554	70.2
	낮다	235	29.8

러나 한방치료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학생은 59.8%로 높았다. 한방간호에 대한 개인 관심정도에서 69.4%가 높다고 응답하였고, 한방간호의 발전전망은 85.8%, 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67.3%, 만성질환 예방효과는 70.2%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2.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본 연구대상자의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점수는 2.70 이었다<표 2>.

<표 2>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점수

N	Minimum	Maximum	Mean	SD
789	2.35	3.62	2.70	.24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는 <표 3>과 같다.

학년에 따라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는 유의한 차이(F=14.15, p=.000)가 있었다. 4학년이 2학년과 3학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

항목		N	M(SD)	t or F	P	Scheffe
학년	2	159	2.69(.28)	14.15	.000*	A
	3	428	2.68(.22)			A
	4	202	2.77(.23)			B
이수학점	1-2	316	2.64(.21)	28.66	.000*	A
	3-5	289	2.74(.25)			B
	6-8	183	2.76(.23)			B
	실습안함	598	2.67(.23)			A
한방 임상실습(주)	1	51	2.81(.21)	32.06	.000*	B
	2	140	2.81(.24)			B
한방외래 치료경험	무	268	2.69(.24)	-1.71	.089	
	유	251	2.72(.24)			
한방병원 입원경험	무	702	2.71(.24)	.744	.457	
	유	87	2.69(.23)			
한방간호 관심정도	높다	548	2.75(.23)	8.83	.000*	
	낮다	241	2.61(.22)			
한방간호 발전 기대	높다	677	2.72(.24)	5.90	.000*	
	낮다	112	2.60(.22)			
간호사 역할확대 기대	높다	531	2.74(.23)	6.60	.000*	
	낮다	258	2.64(.23)			
만성질환 예방효과	높다	554	2.73(.23)	5.80	.000*	
	낮다	235	2.62(.22)			

* P<.05

년보다 인식 및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Scheffe, P=.000).

이수학점에 따라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는 유의한 차이(F=28.66, p=.000)가 있었다. 3-5학점 및 6-8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1-2학점을 취득한 학생보다 인식 및 태도점수가 높았다(Scheffe, P=.000).

한방임상실습에 따라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는 유의한 차이(F=32.06, p=.000)가 있었다. 1주 및 2주의 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실습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보다 인식 및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Scheffe, P=.000).

본인이나 가족의 한방외래 치료경험, 본인이나 가족의 한방병원 입원경험에 따른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가 유의하게(t=8.83, p=.000) 높았다.

한방간호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가 유의하게(t=5.90, p=.000) 높았다.

한방간호가 간호사의 역할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이 기대하지 않은 학생보다 인식 및 태도점수가 유의하게(t=6.60, p=.000) 높았다.

한방간호가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이 기대하지 않은 학생보다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가 유의하게(t=5.80, p=.000) 높았다.

IV. 논 의

본 연구는 한방간호학 관련 교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인식 및 태도점수(1-4점)는 평점 2.70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긍정적이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년에 따라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는 2학년이나 3학년보다 4학년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것은 4학년의 경우 간호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한방간호학 관련 과목의 이수학점에 따라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점수는 1~2학점을 이수한 경우보다 3~5학점 또는 6~8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에서 모든 서의간호대학(3년제 또는 4-5년제)들이 중의 호리학과 관련된 과목을 최소 2과목 이상 이수하고 있는(문희자, 김광주, 박신애, 김일원, 박희순, 2002) 현실과 비

교할 때 매우 의미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간호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지식, 태도, 기술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학교육 기간동안 학생의 가치나 태도의 발달이 간호교육의 관심사가 되므로(정혜경, 1999) 학생들에게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긍정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2학점보다는 3~5학점 이상의 과목 이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옥도훈(2000) 역시 간호대학생들에게 한방간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과목 이상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비교해 볼 때에 본 연구 결과는 의미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한방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점수는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은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이 갖는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William(1999)이 임상실습 교육은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교육의 통합에 필수적 부분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중국의 서의간호대학에서 임상실습에 중의 호리학 실습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에(문희자 외 4인, 2002) 중국의 모든 서의간호대학은 서의간호 속에서도 중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태도를 교육하고 있어서 우리의 현실보다 간호정체성을 찾아가는데 한발 앞서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방간호교육에서도 임상실습은 포함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한방 임상실습을 한 경우, 1주일 한 학생들과 2주일 한 학생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그 기간이 비교하기에는 너무 단기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과 가족의 한방병원 외래치료나 입원경험이 간호학생의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명자(1992)는 간호학생의 한방의료에 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한방의료에 관한 요인을 4개로 분류하였다. 이 중 요인 1을 보면 한약과 침은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으나, 미생물에 의한 질병이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분야는 양방이 좋으며, 이외의 질병은 한방이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태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왕명자(1992)연구와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왕명자(1992)의 연구는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것으로서 문항의 구성도 크게 한방의료에 관한 인식과 한방의료에 관한 효과 측면의 36문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크게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인지적 측면은 지식(사실, 개념, 법칙, 이론을 상기하거나 재현 하는 것),

문제 해결력, 이해(어떤 깨우침을 가지게 되는 것), 적용(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장면에서 사용하는 것), 의미, 사고력, 추론 능력 정도, 가치판단 등으로서 4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정의적 측면은 흥미, 태도, 학습동기, 학습습관, 가치관 등으로서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동적 측면은 가치규범의 실천, 습관화, 행위수행능력, 의지 등으로서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왕명자(1992)의 연구와는 다른 측면을 연구한 것이므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양진주(2000)의 연구를 보면 본인의 입원 경험에 따라 실습만족도의 차이가 있으며, 입원경험이 있는 군에서 실습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박송자(1993)의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를 Q방법론 적용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임상실습태도를 유형 1(원만한 적응형), 유형 2(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 유형 3(현실적 직업추구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유형 1(원만한 적응형)에서 가족이나 본인의 입원경험이 있는 학생이 인자가중치가 높았다고 하였고, 유형 2(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에도 본인이나 가족 중 아파서 괴로워 하는 모습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겪은 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경험이 간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한방치료 경험과 한방병원에 입원 경험이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양방병원에서 입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급성이고, 증상이 심한 반면에 한방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환자의 특성이 만성적이고, 증상이 심하지 않고, 건강관리, 건강증진, 질병예방 측면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학생의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서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점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점수가 높았다. 이는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한방간호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방간호에 대한 제반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기 쉬워지고, 따라서 한방간호를 적용하는 수행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미숙(1998)도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면 긍정적 간호관과 학습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은하와 오윤희(2000)의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으며, 주혜경(1999)은 실습만족도에 따라 간호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양진주(2000)도 간호직이 적성에

맞다고 한 집단에서 실습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고, 이규은 등(2000)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기술, 교육/협력, 전문적 발전, 간호과정 영역에서 임상수행능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로 유추해 볼 때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에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높은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방간호의 발전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학생과 한방간호가 간호사의 역할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 그리고 한방간호가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오미정(1997)은 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는 간호지식체 개발이 필요하며, 변화에 앞장서서 준비하기 위해서 한방간호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점수가 한방간호의 발전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학생과 한방간호가 간호사의 역할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에서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방간호교육을 통한 한방간호의 발전 전망을 크게 내다 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향련 등(2000)은 현재까지의 보건 의료정책이 질병관리 위주에서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의료관리 체제의 변혁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옥도훈(2000)도 한의학이 예방적인 의미 뿐 아니라 질병치료의 의미도 함께 지니기 때문에 학문적 내용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건강증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미래사회의 건강증진은 간호사가 주로 국민의 건강관리를 제공하게 될 측면에서 볼 때, 간호영역의 역할확대와 발전전망은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방간호가 간호사의 역할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에서 한방간호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홍원식(1988)은 한국인의 건강관을 논한 논문에서, 서양과 동양의 건강개념을 볼 때, 서양의 건강 개념은 치료중심인 반면, 동양의 전통적인 건강 개념은 예방 중심이며, 이는 자연과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하였다. 또한 왕명자(1992)의 간호학생의 한방의료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도 보면, 한방의료는 치료의학 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 견해로 보아 본 연구에서 한방간호에 대한 간호학생의 인식 및 태도가 만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집단에게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결과는 한방간호가 질환의 예방의 중요성을 크게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는 의료수요 증대, 의료기술의 개발화, 국제화, 의료조직의 국내 이전 촉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개방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국제 경쟁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21세기 간호교육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예방측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한방간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새로운 간호영역의 확대가 절실하므로 한방간호교육이 더욱 더 필요하다(신재신, 1997). 이에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한방간호의 발전전망 및 한방간호가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는데 점수가 높은 것을 볼 때 한방간호교육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예방측면의 큰 역할의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며 한방간호를 통한 간호의 역할확대 또한 크리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간호학생이 가지고 있는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간호대상자와 한방적 사고로 건강관리를 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한국인 간호대상자를 간호하게 될 경우에 보다 긍정적으로 그들을 이해하며 돌 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관 형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인이 지각하는 건강, 질병, 죽음, 돌봄행위, 건강행위에 대한 사고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한국적인 간호를 포함하는 정체성 있는 간호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간호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방간호교육은 한국의 모든 간호대학에서 앞으로는 필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3~5학점 이상, 임상실습을 포함한 교육으로서 시행해 나갈 때 한국적 간호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되어 가는 한방병원 환자들을 돌 볼 수 있는 간호사들의 기본자세를 갖추 수 있으리라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로서 연구대상자는 한방간호 교과목을 수강한 9개교에서 789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본 연구자들의 문헌고찰을 하여 개발한 123개의 기초문항을 4명의 간호학 교수와 한방병동 수간호사 5명이 내용타당도를 검사하여 86문항으로 수정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자료분석은 t-test, ANOVA, Scheffe test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점수는 2.70 이었다.
2. 학년에 따라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4.15$, $p=.000$). 4학년이 2학년과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 이수학점에 따라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28.66$, $p=.000$). 3~5학점과 6~8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1~2학점을 취득한 학생보다 높았다.

4. 한방간호 실습 기간에 따라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2.06$, $p=.000$). 1주 또는 2주의 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실습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5.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t=8.83$, $p=.000$), 한방간호의 발전에 대해 기대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t=5.90$, $p=.000$), 한방간호가 간호사의 역할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이 기대하지 않는 학생보다($t=6.60$, $p=.000$), 한방간호가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이 기대하지 않는 학생보다($t=5.80$, $p=.000$)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6. 본인이나 가족의 외래치료와 입원경험에 따른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방간호교육은 간호학생의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은 한방간호 교과목 개설이 요구되며,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한방간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연구하는 확대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귀분 (1991). *한국인의 건강관행에 대한 민속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 김은하, 오윤희 (2000).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186-198.
- 동서간호학연구소 (2000). *한방간호학 총론*, 수문사.
- 문미숙 (1998).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1), 15-27.
- 문희자, 김광주, 박신애, 김일원, 박화순 (2002). 한·중 간호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비교연구, *동서간호학 연구지*, 7(1), 32~47.
- 박송자 (1993).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 Q방법론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23(4), 544-554.
- 박충선 (1999). 한방과 간호학적 접근, *목포과학대학 논문집*, 23(2), 493-504.
- 신경림 (1998) *간호학적 측면의 대체요법*, 한국적 간호중재,

춘계 학술대회, 대한간호학회, 32~43.

신재신 (1997). 21세기의 간호교육,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 3~10.

양진주 (2000).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 가치관과 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276-286.

오미정 (1997). 한방 간호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동의논집, 27, 149~169.

오미정 (1999). 한방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동의논집, 30, 197~207.

옥도훈 (2000). 한방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방간호학회지, 2(1), 55~73.

옥도훈(2000), 한방보건의료과정 중 간호사의 역할 분담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왕명자 (1992). 간호학생의 한방의료에 관한 인식·태도 연구, 한국보건의간호학회지, 6(1), 46-61.

왕명자, 안옥희, 김희숙, 옥도훈 (1998). 한방병원 병상상태와 한방간호의 교육현황에 따른 한방간호사 수요예측에 대한 고찰, 동서간호학연구지, 3(1), 39-49.

이규은, 하나선, 길숙영 (2000). 간호대학생의 자기표출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0(3), 571-583.

이애란, 양경희, 한선희, 장혜숙 (1993). 한방병원 간호업무에 대한 환자, 간호사 및 한의사의 인식 비교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2), 284-298.

이향련외 8인(2000), 한방증진센터 설립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동서간호학 연구지, 5(1), 90.

정혜경 (1999).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혜경 (1999). 간호학생의 보건교육 수행정도와 간호전문직 만족도와의 관계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5(1), 106-117.

최준식 (1998). 한국적 측면의 대체요법, 한국적인 간호학정립을 위한 한국문화의 기초적모색, 춘계학술대회, 대한간호학회, 6~7.

홍원식(1988), 음양론에 입각한 한국인의 건강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학술 심포지움, 12-15.

Eisenberg, D. M., Davis, R. B., Ettner, S, L., Apffel, S., Wilkey S., et al. (1998).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in the United States, 1990~1997. *JAMA*, 280(18), 1569~1575.

Williams, A. F. (1999). An Antipodean evalu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by clinical educators.

Nurse Education Today, 19, 659~667.

- Abstract -

Key concept : Oriental nursing, Cognition, Attitude

A Pilot Study in Cognition and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on Oriental Nursing

Han, Sang Sook¹⁾ · Kim, Won Ock¹⁾
 Hyun, Kyung Sun¹⁾ · Won, Jeong Sook¹⁾
 Choi, Kyung Ock²⁾ · Chang, Kyung Hwa³⁾
 Lee, Mi Aie⁴⁾ · Kim, Sook Young⁵⁾
 Jeon, Eun Young⁶⁾ · Kim, Jeong Sook⁷⁾
 Lee, Eun Sook⁸⁾ · Bae, Yeong Suk⁹⁾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cognition and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on Oriental Nursing,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being 789 nursing students from 9 different universities who took the Oriental Nursing class. A questionnaire,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which have been verified through enquiries into records and references as well as preliminary researches, was used as a research tool. The questionnaire, a set of 86 questions,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of this study, and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is Cronbach's=85.

The collected data have been analysed using SPSS windows programme 11.0 for t-test and ANOVA,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gnition and attitude points according to the academic year (F=14.15, p=.000). After the post-hoc test, it was revealed that the points of the students in their 4th year were significantly

1) KyungHee University 6) Daegu Haany University
 2) Ansan College 7) Dongshin University
 3) Kangwon Tourism College 8) Chunnam Techno College
 4) Dongguk University 9) Christian College
 5) Pochon CHA University

higher than the points of the students in their 2nd or 3rd year.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gnition and attitude points according to the credits the students have taken ($F=28.66$, $p=.000$). After the post-hoc test, it was revealed that the points of the students who have taken from 3rd to 6th credi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oints of those who have taken from 1 to 2 credits.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gnition and attitude points according to the period of time the students have experienced Oriental Nursing ($F=32.06$, $p=.000$). After the post-hoc test, it was revealed that the points of the students who have practised Oriental Nursing from 1 to 2 week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oints of those who have not practised it at all.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gnition and attitude points according to the treatment or hospitalisation of the students themselves or their family members.
5. The cognition and attitude points of the students who are deeply interested in Oriental Nurs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oints of those who are not ($t=8.83$, $p=.000$).

6. The cognition and attitude points of the students who have higher expect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Oriental Nurs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oints of those who have not ($t=5.90$, $p=.000$).
7. The cognition and attitude points of the students who believe that the Oriental Nursing will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roles of nurs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oints of those who do not ($t=6.60$, $p=.000$).
8. The cognition and attitude points of the students who expect that the Oriental Nursing will be effective in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oints of those who do not ($t=5.80$, $p=.000$).

According to the results above, it was confirmed that proper education on Oriental Nursing can have affirmative effects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 of the nursing students towards Oriental Nursing.